

비영리 생태계의 **협업**에 대한 단상

- **필요**하지만 피로한,
피로하지만 **필요**한 -

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**김유리**

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 운영위원
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
공익네트워크 우리는 운영위원



공익 생태계의 변화

- 변화하고, 사라지고, 확장되는 공익 생태계의 변화
 - 활동 주체의 변화
 - 활동 방식의 변화
 - 활동 내용의 변화
 - 활동 동기의 변화
 - 활동 공간의 변화
- 공익 생태계의 변화를 이끄는 주요 키워드 : 연결, 협력, 전환
 - 우리는 무엇을 **연결**하고, 누구와 **협력**하고, 어떤 **전환**을 꿈꾸는가?
 - 연결과 협력이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이유

협업의 시너지를 위한 우리의 **변화의 시나리오**



- **섹터 간/섹터 내의 협업**

- 경계의 넘나들은 무엇을 남겼는가?
- 기존의 문법과 관점에서 벗어나 **패러다임의 전환**을 만든다는 것
- **변화의 문법**을 함께 만든다는 것
- 각자의 자원을 가감 없이 공개하고,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자임할 수 있는 태도라는 것

- **협업의 기본 원리 : 시스템(제도/프로세스)+태도(가치/철학)**



정부-시민사회 간의 협업 단상(1)

- 민선 6기, 7기^{2014년 이후}에서 **협치 정책 부상**
 - 당위로서 접근한 협치, 협치적 관점을 내재화하기까지의 시행착오
 -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이해와 관점 부재
- 정권의 교체에 따라 **점점 사라지고 있는 키워드 '협치'**
 - 사회환경적으로는 '파트너십', '협력'의 중요성 부각
 - 정치환경적으로는 정책환경의 변화로 인해 형식적 껍데기로만 남은 협치



정부-시민사회 간의 **협업 단상(2)**

-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**민관 협력체계 모색과 시도**
 - 2021년 1월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발표 및 17개 광역시도 배포
 - 2021년 5월 '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' 시행
 -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행정의 책무로서 기본계획 수립 의무 명시
 - 민관 협력체계 및 시민사회 영역 간의 연계/협력 체계 강화 마련할 것을 권고
 - 전국적으로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(행정-민간 중간지원조직) 설치 확대
- 정부-시민사회 간의 **공식 소통기구로서의 거버넌스 체계 붕괴**
 - 시민사회(발전)위원회 운영 종료(2015년~2022년/1기~4기까지 운영)
 - 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폐합 정책(2022년)
 - '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' 일방적 폐기(2022년 10월)
- 소통이 보이지 않는 **'시민사회와 정부의 소통 플랫폼', 시민통통**

시민사회의 자발적 네트워크, 공익네트워크 **우리는**이 던져주는 시사점(1)

- 네트워크 필요성에 대한 **공감대 확인 및 명확한 목표 인식**

- **‘왜?’라는 강력한 물음(문제의식)**에서 처음 네트워크 시작

[문제의식 1] 왜, NPO의 사회적 책무성이 중요할까?

[문제의식 2] 왜, 외부의 간섭과 규제, 순위매김에 단체가 끌려다녀야 할까?

[문제의식 3] 왜, 우리는 스스로를 되짚어볼 환경과 조건이 안 되는 걸까?

[문제의식 4] NPO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, 좀 더 책임있게, 신뢰있게, 안전하게, 안정감있게
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좌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?

- **공동의, 공통의 목표를 기반으로 One team으로 활동**

- 2018년 초기 7개 단체와 전문기관이 파트너로 출발

- 2024년 현재 11개 단체(21명 운영위원) 매달 정기 모임 운영



시민사회의 자발적 네트워크, 공익네트워크 **우리는**이 던져주는 시사점(2)

- 느슨하지만 **꾸준한 네트워크가 갖는 강력한 힘**
 - 꾸준한 만남을 통해 조직 이슈와 근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간의 비빌언덕으로 작용
-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이슈의 발화 및 현실적인 문제 해결 타개책 제안
 - 이슈 공론화 및 현장 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객관적 근거 제시
- 네트워크 위상 향상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 견인
 - 공익법인 결산공시 제도 일부 개선(2021년부터 꾸준히 정부에 개선안 제안)
 - 느슨한 네트워크에 불과하였지만, 이제는 국세청의 주요한 카운터파트로 부상
- **작은 변화이지만, 지치지 않는 시도를 통한 변화 도모 : 협업의 힘**

